13. 충직

열세 번째는 충직함을 숭상함이니, 충직하고 순후함과 기개와 절조는 서로 표리[21]가 되는 것이니 스스로 지키는 절도가 없이 두루뭉수리 한 것으로 충성하고 순후한 체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근본적인 덕이 없이 강하고 과격함으로써 기개와 절조인 체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세속이 어지럽고 야박하여 실덕[22]이 날로 상실되어 남의 비위를 맞추어 아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만스럽게 기개만 숭상해서 행실이 중도에 맞는 선비를 얻어 보기가 실로 어렵다.

『시경』에 "온화하고 공손한 사람이여 오직 덕을 닦는 기초로다." 하였고, "부드러워도 삼키지 않고 딱딱해도 뱉어 버리지 않도다." 하였다. 사람이 반드시 온순하고 공손하며 화평하고 순수하여 근본이 깊고 두터워진 뒤에야 제대로 정의를 세워 큰 절개에 다다라

---

21 표리(表裏) : 겉과 속

22 실덕(實德) : 실제의 덕, 진실한 덕

자기 뜻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저 비루하고 아첨하는 못난 자들이야 본래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명색이 학문한다는 선비로서 자신의 재주와 권위만 믿고 남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자는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조금 터득해도 만족하고 발끈하거나 명성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어찌 제대로 된 기개와 절조를 지닌 자이겠는가.

요즘 선비들의 병통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예법에 관한 학문이 밝지 못하고 허례와 교만이 습성이 된 탓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의에 관한 학문을 밝혀 윗사람을 높이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하면 충직하고 순후함과 기개와 절조를 다 완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해설

충~성! 논산 훈련소에서 참 많이 했던 경례구호입니다. 헐렁한 군복에 처음 신어보는 군화로 물집이 잡혀 절뚝거리면서도 선임병을 보면 멀리서부터 손가락을 모자에 붙이고 힘차게 했던 경례구호입니다. 그때는 훈련병이라 이등병 계급장도 달기 전이었습니다.

충성! 하면 군인이 떠오릅니다. 군인은 국토방위를 하는 사람이지요. 유사시에는 전쟁터나 임무 수행 중 나라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놓아야 합니다. 군인들은 충성 구호를 외치면서 애국심으로 무장합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명령에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충(忠) 글자는 가운데 중(中)과 마음 심(心)으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붙여서 읽으면 중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 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충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합니다. 충 글자를 성리학자들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로 풀이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충성의 대상이 사람을 사귀고 대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면 온 마음을 다해 충성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온 마음을 다해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번지가 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해 준 말 중에 '사람을 대할 적에 충성되게 하여야 한다.'(『논어』 13:19) 했습니다. 자장이 행실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해 준 말 중에 '말이 충실하고 믿음직스러워야 한다'(『논어』 5:5) 했습니다. 증자가 하루에 세 번 반성하는 것 중에 '남을 위하여 일을 꾀하면서 충성스럽지 아니한 것이 있는지'(『논어』 1:4) 살폈습니다.

율곡은 충직하고 순후함이 기개와 절조는 서로 표리를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표리를 이룬다는 말은 '예와 악은 표리의 관계요 손바닥과 손등의 사이다.'라는 것처럼 서로 뗄 수 없고 양면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충직하고 순후함과 기개와 절조는 상보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충직하고 순후한 성품은 앞서 이끌고 나가기보다는 순종하고 인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순후한 사람은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연장자들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충직하고 순후한 도덕군자라는 좋은 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소신과 결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개와 절조를 가지고 부족한 면을 보완해야 합니다.

기개와 절조가 있는 사람은 일의 시비를 분명하게 따지며 자기 확신과 소명감이 확고합니다. 일을 처리할 때 끊고 맺음이 분명합니다. 기개가 있는 사람은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문

제를 제기하고 시정하고자 노력합니다.

소신 있는 지사라는 좋은 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충직하고 순후한 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충직하고 순후한 덕을 가지고 부족한 면을 보완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키는 절도가 없이 두루뭉수리 한 것으로 충성하고 순후함을 표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덕이 없이 강하고 과격함으로써 기개와 절조를 표방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율곡이 말했습니다. "충직하고 순후함과 기개와 절조는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이니 스스로 지키는 절도가 없이 두루뭉수리 한 것으로 충성하고 순후한 체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근본적인 덕이 없이 강하고 과격함으로써 기개와 절조인 체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충직하고 순후함이 지나치면 남의 비위를 맞추어 아부하는 자가 됩니다. 반대로 기개와 절조를 숭상함이 지나치면 안하무인 식으로 거만하고 고집불통이 됩니다.

율곡이 역시 말했습니다. "세속이 어지럽고 야박하여 실덕이 날로 상실되어 남의 비위를 맞추어 아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만스럽게 기개만 숭상해서 행실이 중도에 맞는 선비를 얻어 보기가 실로 어렵다."

충직하고 순후함과 기개와 절조가 잘 어우러진 중도를 실천하는 선비를 세상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용의 도를 체득한 선비가 되어야 합니다.

중용은 유학 덕론의 핵심을 이룹니다. 공자가 이를 여러 차례 소상하게 말했습니다.

공자가 말합니다. "바탕이 꾸밈을 이기면 거칠고, 꾸밈이 바탕을 이기면 호화로우니 꾸밈과 바탕이 어우러진 다음에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논어』 6:16)

바탕은 순수함이고 꾸밈은 세련됨입니다. 순수한 바탕이 없이 세련되면 천박하거나 가볍기 쉽습니다. 반대로 다듬고 정제하지 않고 순수함만을 고집하면 투박하거나 고집불통이 되기도 합니다. 군자는 꾸밈과 바탕이 어우러진 중용의 도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기록한 공자의 모습입니다. "공자께서는 온화하시면서도 엄숙하시며,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으시며, 공손하면서도 편안하셨다."(『논어』 7:37)

온화한 사람은 나약할 수 있습니다. 위엄이 있는 사람은 다가가기 어렵기도 합니다. 공손한 사람은 틀에 잡히기도 합니다. 온화하면서도 엄숙하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고, 공손하면서도 편안한 공자는 중도를 체득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공자를 성인으로 높이는 데에는 이와 같은 공자의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자공이 자장과 자하 중에서 누가 더 똑똑하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자가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고 답을 합니다. 자공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다는 말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보다 뛰어나다는 의미에 가

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논어』 11:16) 합니다.

자공과 공자가 나눈 이 이야기가 『논어』에 실려 수천 년을 내려오며 인구에 회자된 데에는 우리가 자공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상식을 무너뜨리는 격언이기 때문입니다. 유학의 핵심 원리인 중용의 도에 익숙해지면 공자의 말이 절로 이해가 됩니다.

중용사상은 『중용』이라는 책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중용』은 원래 『예기』에 들어간 한 편명입니다. 송대에 이르러 주자가 마침내 『중용』에 주석을 달아 『논어』, 『맹자』, 『대학』과 함께 사서의 반열에 올린 후로 확고부동한 유학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중용을 상황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규정하면 때에 알맞게 한다는 시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용』은 시중을 가지고 중용사상을 설명합니다.

중용을 공간적으로 규정하면 중간 혹은 중심이라는 단어가 해당합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종로구 정도쯤 혹은 한강 정도쯤.

저처럼 서울의 중심이 어디인지 궁금해 한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건양 원년(1896년) 당시 서울의 중심을 따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서울 사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종로구 인사동을 서울의 중심

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그 자리인 194의 4 하나로 빌딩 지하에 '서울의 중심점 표지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9년에는 서울시가 GPS 측량을 통해 서울시의 지리적 중심점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구 남산 중턱이 서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서울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앙을 따졌겠지요.

범위를 넓혀서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딜까요? 인사동은 아니겠지요. 남산 중턱도 아니겠지요. 서울도 아닙니다. 인사동은 사대문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온 결과이고, 남산 중턱은 서울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측정한 값입니다.

중간은 기준을 무엇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이 변하면 중간도 따라 변합니다. 변화하지만 그렇다고 중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대문을 기준으로 하면 인사동이 틀림없이 중간이고, 서울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면 남산 중턱이 중간입니다.

중용은 고정된 무엇이 아닙니다. 중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중간은 다르지만 중간이 여전히 존재하듯이 말입니다.

『중용』에서는 중용의 원리를 성(誠)이라고 합니다. 『중용』 전체 33장에서 제20장부터 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용』이 원래 두 개의 단독 문헌이 합쳐졌다고 하는 연구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제1장에서 제19장까지를 한 책으로 제20장부터 제33장까지를 다른

한 책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성이라는 한자는 말씀 언(言)과 이룰 성(成)으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말을 이룬다는 말은 말대로 하는 것입니다. 뜻풀이로 명사로는 정성, 형용사로는 정성스럽다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지성은 지극한 정성으로 곧 정성입니다. 정성이라는 말에 극진한 마음씀씀이, 진실한 마음씀씀이 등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극 정성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 반드시 올바른 행동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남을 도와주려는 선의가 도리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지요. 지극 정성의 선의와는 달리 도리어 나쁜 결과가 된 경우를 종종 목도합니다.

지극 정성으로 일을 하더라도 중용의 도리에 꼭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은 중용의 원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효자는 부모님의 안부를 늘 마음에 담아둡니다. 『학교모범』에서는 그 일례로 온청정성(溫凊定省)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처소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립니다. 저녁에는 잠자리가 편안한지 살피고 아침에는 잘 주무셨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효자는 늘 온청정성을 실천합니다. 하다보면 어제 한 온청정성은 어색하고 기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을 수 있고 오늘 한 온청정성은 원숙하고 자연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매번 온청정성의

중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자는 어제도 온 정성으로 온청정성을 했고 오늘도 온 정성으로 온청정성을 했습니다. 매번 온청정성을 하는 데에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안부를 최선으로 생각하는 그 정성은 동일합니다.

『논어』에서는 중용을 예(禮)에 적합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중용』에서 정성을 통해 중용의 원리를 풀어갔다면, 『논어』는 예를 가지고 중용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예는 제사를 지내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제물을 올리고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귀신이 제물을 흠향해야 복을 내릴 것입니다. 귀신이 제사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야 하며, 정성을 제대로 드러낼 절차와 순서가 필수입니다. 절차와 순서가 정해지면 이를 임의로 바꾸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절차와 순서가 귀신이 가장 잘 흠향하고 복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후에 이 뜻이 넓어져서 이치, 도리로 예를 해석하게 됩니다.

공자가 말합니다. "공손하지만 예가 없으면 수고롭고, 삼가지만 예가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용감하지만 예가 없으면 혼란스럽고, 강직하지만 예가 없으면 급절하다."(『논어』 8:2)

예는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기준입니다. 공손한 마음이 지나치면 수고롭게 됩니다.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두려워합니다. 용감한 마음이 지나치면 혼란을 일으킵니다. 강직한

마음이 지나치면 융통성이 없습니다. 주자가 예를 천리가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드러난 절목으로 사람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중간과 중심이 기준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앞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중간과 중심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용의 도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실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공자는 중용의 도,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 공부를 이야기 합니다. 역시 공자답습니다.

공자가 말합니다. "인애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어리석게 되고, 지혜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방탕하게 되고, 믿음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해치게 되고, 정직한 것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답답하게 되고, 용맹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어지럽게 되고, 강한 것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경솔하게 된다."(『논어』 17:8)

사랑은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호의로 덮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하면 주관적인 판단으로 객관적인 상황을 호도할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노출하기도 합니다. 바로 어리석게 됩니다.

사랑이 편향되어 중용의 도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랑이 진정으로 옳은 사랑인지 조사하고 검

토하는 등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 사랑이 편향되면 드러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좋아하면 많이 알려고 합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핵심이 없이 잡동사니 지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믿음을 중시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공부를 해서 분별력을 높이지 않으면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용맹한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서 용맹을 다스릴 줄 모르면 상황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강한 것을 숭상하는 사람은 여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황을 무시해서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충직하고 순후함과 기개와 절조는 서로 표리를 이루어야 한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굳이 겉과 속을 따지자면 충직하고 순후함이 속이 되고 기개와 절조가 겉이 됩니다. 속에서부터 겉으로 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율곡은 말합니다. "『시경』에 '온화하고 공손한 사람이여 오직 덕을 닦는 기초로다.' 하였고, '부드러워도 삼키지 않고 딱딱해도 뱉어 버리지 않도다.' 하였다. 사람이 반드시 온순하고 공손하며 화평하고 순수하여 근본이 깊고 두터워진 뒤에야 제대로 정의를 세워 큰 절개에 다다라 자기 뜻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기개와 절조를 지나치게 숭상하면 안하무인 식으로 거만하고 고집불통이 됩니다. 율곡이 말합니다. "명색이 학문한다는 선비로서

자신의 재주와 권위만 믿고 남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자는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조금 터득해도 만족하고 발끈하거나 명성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어찌 제대로 된 기개와 절조를 지닌 자이겠는가."

율곡은 예법에 관한 학문을 제대로 공부하면 윗사람을 높이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를 다하게 되어서 충직하고 순후함과 기개와 절조를 다 완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忠厚與氣節, 相爲表裏.
충 후 여 기 절 상 위 표 리

無自守之節, 而以摸稜爲忠厚, 不可也.
무 자 수 지 절 이 이 모 릉 위 충 후 불 가 야

無根本之德, 而以矯激爲氣節, 不可也.
무 근 본 지 덕 이 이 교 격 위 기 절 불 가 야

世俗淆薄, 實德日喪, 非詭隨阿人, 則必矯亢尙氣.
세 속 효 박 실 덕 일 상 비 궤 수 아 인 칙 필 교 항 상 기

中行之士, 誠難得見矣.
중 행 지 사 성 난 득 현 의

충직하고 순후함과 기개와 절조는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지키는 절도가 없이 두루뭉수리 한 것으로 충성하고 순후한 체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근본적인 덕이 없이 강하고 과격함으로써 기개와 절조인 체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세속이 어지럽고 야박하여 실덕이 날로 상실되어 남의 비위를 맞추어 아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만스럽게 기개만 숭상해서 행실이 중도에 맞는 선비를 얻어 보기가 실로 어렵다.

忠厚: 충성되고 후덕하다/與: ~와/氣節: 기개와 절개/相爲: 서로 ~이 되다/表裏: 겉과 속/無: ~이 없다/自守: 스스로 지키다/以: ~써/摸稜: 모서리를 어루만지다, 핵심을 벗어나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다/爲: ~로 여기다/不可也: 불가하다, 옳지 않다/根本之德: 근본의 덕/以: ~써, 以~爲: ~써 ~을 삼다/矯激: 과격하다/世俗淆薄: 세상의 풍속이 혼란스럽고 야박하다/實德:

실제의 덕, 진실한 덕/日喪: 날로 없어지다/非: ~이 아니다, 非~則: ~이 아니면 곧 ~이다/詭隨: 거짓으로 따르다, 남의 비위를 맞추다/阿人: 아부하다/必: 반드시/矯亢: 거만하다/尙氣: 기개만 높이다/中行之士: 중도를 행하는 선비/誠: 진실로/難得見矣: 만나보기 어렵다

彼卑諂卑夫. 固不足道矣. 名爲學問之士.
피 비 첨 비 부 고 부 족 도 의 명 위 학 문 지 사

而挾才挾賢. 輕人侮物者. 其害不可勝言. 得少爲足.
이 협 재 협 현 경 인 모 물 자 기 해 불 가 승 언 득 소 위 족

悻悻自好者. 豈能眞有氣節哉. 近日士子之病如此.
행 행 자 호 자 기 능 진 유 기 절 재 근 일 사 자 지 병 여 차

良由禮學不明. 虛驕成習故也.
양 유 예 학 부 명 허 교 성 습 고 야

저 비루하고 아첨하는 못난 자들이야 본래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명색이 학문한다는 선비로서 자신의 재주와 권위만 믿고 남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자는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조금 터득해도 만족하고 발끈하거나 명성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어찌 제대로 된 기개와 절조를 지닌 자이겠는가. 요즘 선비들의 병통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예법에 관한 학문이 밝지 못하고 허례와 교만이 습성이 된 탓이다.

彼: 저/卑諂: 비루하고 아첨하다/鄙夫: 못난 사람/固: 본디/不足道矣: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名爲學問: 명색이 학문한다/挾才: 재주를 끼고, 재주를 믿고/挾賢: 똑똑한 것을 끼고, 똑똑한 것을 믿고/輕人: 남을 업신여기다/侮

物: 남을 모욕하다/者: ~사람/其: 그/害: 해로움/不可勝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다/得少: 조금 터득하다/爲足: 만족하다/悻悻: 화를 내다/自好: 명성을 좋아하다/豈: 어찌/能: 능히/眞: 진짜로/哉: 의문형 종결사/近日: 근래/士子: 선비들/如此: 이와 같다/良: 실로/由: 말미암다/虛驕: 허례와 교만/成習: 습관이 되다/故也: 이유이다